

					III-A-5
제목	국문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교 학생의 체형 및 체중인식과 섭식장애의 연관성에 대한 성별 비교			
	영문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about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concerns of body shape and weight and eating disorders, in Seoul			
저자 및 소속	국문	정최경희, 박혜숙, 이보은, 하은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Kyunghee Jungchoi, Hyesook Park, Boeun Lee, Eunhee Ha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분야	역학 [비만및신체발육]	발표자	정최경희 [전공의]	발표형식	구연
진행상황	연구중 → 완료예정시기 : 2001년 12월 30일				
<p>1. 목적</p> <p>미국의 경우, 10대 여성 중 신경성 식욕부진증의 유병율은 0.5-1%,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여성과 젊은 여성들 중 신경성 대식증의 유병율은 5%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섭식장애는 현재 미국 및 선진국 내 청소년기의 여성에서 세 번째로 많은 만성질환이 될 정도로 유병률이 높아졌다. 섭식장애는 환자 중 여성이 90%에 이를 정도로 성별분포의 차이가 많이 나며,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들이 얽힌 매우 복잡한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다.</p> <p>국외에서는 점차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섭식장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80년대 이후 위험요인을 밝히려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그중에는 성별에 따라 섭식장애 분포가 크게 차이나는 것을 기반으로 위험요인의 성별 차이를 밝힘으로써 섭식장애의 위험요인을 밝혀보려는 몇몇 연구들도 있어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주로 대상이 환자 그룹으로 한정되어, 성별 위험요인의 모델링에 제한이 있었다.</p> <p>본 연구에서는 섭식장애의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인 체형, 체중에 대한 인식이 섭식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남녀별로 살펴봄으로서 섭식장애에 대한 위험요인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p> <p>2. 방법</p> <p>1) 연구대상</p> <p>2001년 5월, 서울시내 2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066명을 대상으로 정기 신체검사시기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 2-3주 뒤 회수하였다. 851명(남자 233명, 여자 618명)의 학생이 응답하여 79.8%의 응답율을 보였다.</p> <p>2) 연구변수</p> <p>종속변수인 섭식장애는 25문항의 자가평가 문항(Dartmouth college eating behavior self-assessment, http://www.dartmouth.edu/~chd/selfassessment.html)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4-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점 중 16점 이상인 군을 섭식장애 고위험군으로, 15점 이하인 군을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p> <p>주 설명변수인 체형 및 체중에 대한 인식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보건소(1998-1999)에서 사용했던 설문지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체형에 대한 인식은 몸매관리에 대한 욕구를, 체중에 대한 인식은 체중 조절에 대한 욕구를 각각 4점 척도로 조사하여, 분석에서는 욕구가 매우 강한 그룹과 그 이하의 욕구를 느끼는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외 설명변수로 학교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생활수준, 부모의</p>					

관계가 있었다. 남학생들은 자신의 키에 맞는 이상체중이 되기를 원하며, 다이어트를 통한 체형의 관리는 비만인 그룹에서만 어느 정도 인정될 뿐, 일반적인 체형의 관리는 자신의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방식(운동 등)이 선택된다. 반면 여학생에서는 지나치게 날씬한 몸매에 대한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체형의 관리가 곧 이상체중을 벗어나 과도하게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사회적 요인에 대한 개인적 수준에서의 반응을 본 연구 결과가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되는 사회문화적 규범이 다른 상태에서는, 특히 섭식장애와 같이 사회환경요인(사회문화적 규범, 가족요인, 동료의 규범과 행태 등)이 크게 작용하는 질병의 경우 성별 유병율이 큰 차이를 보이며 질병의 발생과정도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섭식장애를 발생시키는 위험인자에 대한 남성과 여성 각각의 이론적 모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섭식장애에 대한 예방적 접근에서도 성별로 주안점을 달리한 체계적인 방식으로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수준, 흡연력·음주력·다이어트 과거력 등 건강행태와 이상체중(IBW)과 비만도(BMI)를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자가기입설문자료와 건강진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SAS 8.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체형과 체중 인식과 섭식행위의 단변량 분석은 PROC FREQ 를 이용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였으며 다변량분석은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비차비와 95%신뢰구간을 계산하였다.

3. 결과

1) 섭식행동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의 분포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체중 조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그룹이 유의하게 많았으나, 몸매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룹의 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외에 여학생에서는 다이어트의 과거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에서는 학교 성적 및 성적만족도, 흡연력 및 음주력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섭식장애 설문에 응답한 701 명의 응답자 중 섭식장애 고위험군은 남학생 28명(12.4%), 여학생 101명(16.4%)으로 나타났다.

3) 섭식장애 고위험군에서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몸매관리 욕구(체형인식), 체중조절 욕구(체중인식), 다이어트 과거력 및 흡연력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BMI 의 분포는 남학생에서 BMI25 초과그룹이 48.4%인데 반해 여학생에서는 10%였다. 원하는 체중의 분포를 보면, 남자에서는 90.3%가 이상체중을 원하는 반면, 여자에서는 59.2%가 이상체중보다 낮은 체중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단변량 분석을 이용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섭식장애와 체중 및 체형인식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몸매관리 욕구와 체중조절 욕구가 섭식장애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그 외 다이어트의 과거력, 몸에 대한 불만족도 섭식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섭식장애와 연관이 있는 변수(다이어트 과거력, 성적, 성적 만족도, 생활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흡연력, 몸에 대한 불만족)를 통제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체중조절 욕구 및 몸매관리 욕구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에서는 몸매관리 욕구는 연관성이 사라졌으며, 체중조절 욕구(95% C.I 2.60-46.28, O.R 10.97)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에서는 몸매조절욕구(95% C.I 1.15-4.45, O.R. 2.258)와 체중조절욕구(95% C.I 1.07-4.44, O.R. 2.181)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성별 위험요인의 차이를 분석해보려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상이 환자군으로 한정되어 적절한 대조군을 포함하지 못 하였다. 그로 인해 섭식장애를 가진 남성과 여성은 임상 양상, 정신측정학적 결과, 또는 치료 반응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폭식장애에 대해 성별 차이를 조사한 Tanofsky(1995)의 연구에서도 체형과 체중에 대한 인식, 인간관계 문제, 또는 자아 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체형과 체중에 대한 인식, 다이어트 과거력 및 흡연력 등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과 여학생을 나누어 각각 다변량분석을 통해 섭식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를 살펴본 결과 성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남학생에서는 체형에 대한 인식의 연관성이 사라졌으며, 체중에 대한 인식, 다이어트의 과거력, 생활수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에서는 체형에 대한 인식과 체중에 대한 인식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이어트의 과거력과 성적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한